

경제

광주 아파트 경매 낙찰률 사상최고

광주·전남 전세임대 등 1099가구 공급

LH지역본부, 전세난 해소위해 1개월 앞당겨 모집 공고

전세난 속 1월 중 70건 중 60건 성사

전남 80%수준 유지...경매건수는 급감

최근 전세난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만할 수 있는 경매 아파트에 사람이 몰리면서 평균 응찰자 수가 7.4명으로 전달(6.6명)보다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는 73건으로 전달(127건)보다 크게 줄었으며, 낙찰률은 79.5%로 전달(81.1%)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낙찰가율도 82.3%로 전달(84.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유영일)는 13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광주·전남지역에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1099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및 선정 등의 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시중 임대료의 30%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것이고,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 계약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전셋값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전세금 지원액의 연 2% 이자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받고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것이다.

세라면 5%인 25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4750만원의 연 2% 이자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7만9160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자격 요건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 뒤 자격 심사와 주택 및 자산 소유 여부 검증을 거쳐 입주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71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 압박 비웃는 '고물가'

지난달에도 생필품 10개 중 7개 올라

정부의 고강도 물가 압박에도 지난 1월에 생활필수품 10개 중 7개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리얼, 설탕, 고부장갑 등이 생필품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큰 셈이다. 이는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요금 동결, 담합 및 독과점 조사, 원가 및 유통구조 파악을 통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정부의 고강도 물가 대책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역부족임을 보여줬다.



光銀, 대학생 마케팅 '눈길'

학생증체크카드 이용객 경품·수수료 면제

광주은행은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학생증체크카드 이용 고객에 대한 경품행사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 특별할인 서비스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 등을 잇따라 선보여 지역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액에 따라 1~4회까지 각각 추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1등 당첨자 1명에 아이패드, 2등 5명 외식상품권, 3등 10명 기프리카드 5만원권이 주어지고 총 100명에게 행운상품으로 각각 CGV영화관람권이 제공된다.

기아 'K7' 더 강력해졌다

고성능 GDI 엔진 탑재...스타일·편의사양 고급화



지난해 국내 준대형 시장에서 그랜저를 누르고 1위에 오른 기아 자동차 'K7'이 심장을 바꿔달고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차는 13일 K7에 고성능 GDI 직분사 엔진을 탑재하고 스타일과 편의사양을 고급화한 '더 프레스티지 K7'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기존의 MPI 엔진이 아닌 가솔린 직분사 엔진인 세타 II 2.4 GDI 엔진과 랩다 II 3.0 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은 각각 201마력·210마력, 최대토크는 25.5kg.m와 31.6kg.m, 연비는 ㎥당 12.8km와 11.6km로 동급 최고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구현했다.

리 등을 탑재해 주행 안정성과 정속성을 더욱 강화했다. 기아차는 더 프레스티지 K7에 대한 대대적인 시승행사와 함께 골프 마케팅 등 다양한 판촉 이벤트를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은 2.4 모델이 2980만~3180만원, 3.0 모델이 3390만~3870만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또 노사갈등

노조 아웃소싱 저지·임금 개선 등 투쟁 선언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또다시 노사갈등의 화오리에 휘말릴 조짐이다. 노조가 아웃소싱(도급화) 저지와 임금 반납 철회 등을 주장하며 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반하는 금호자본을 단죄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하나가 돼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6일·23일, 다음달 4일과 5일 광주검찰청 앞에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영진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노조는 이날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은 징계한다는 투쟁지침을 내렸다.

고 밝혔다. 사측은 또 "노조의 불법과건 및 600명 정규직 채용 주장은 지난해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과건 판결에 편승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라며 "불법과건 문제로 또다시 금호타이어가 혼란에 빠진다면 법적인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노사가 합의한 워크아웃 진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일렉 인수자금 납입기한 두달 연장

채권단, 4월 7일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과 관련, 채권단이 엔텍합에 인수자금 납입기한을 두달간 연장해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일렉 매각 우선협상자인 이란계 글로벌기업 엔텍합이 인수자금 납입일인 지난 7일까지 인수자금을 내지 못했지만

채권단은 인수계약 만료일을 4월7일로 연장, 엔텍합에 인수 기회를 두달간 더 주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승인했으며, 우리은행 등 다른 채권기관을 포함해 의결권의 75% 이상 동의한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애몰지식센터
사무실·연구소 분양 및 임대 <R&D특구>
정부종합청사 옆(첨단)
▶1·2층 복층구조
▶전용 32평, 총 64세대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주자재2160평 공시지가 5억 4천 239만 8천 원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북동·생산동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호남랜드공인중개사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노안면 오정리
•대 지 : 4,000평
•건 물 : 650평
•전 : 9,500평
•합 계 : 13,500평
•매매가 : 협의 후 결정